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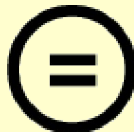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일 착용동사의 의미대조연구

-{입다, 쓰다, 신다}와 {きる, かぶる, はく}를 대상으로-



2010년 2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수 민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일 착용동사의 의미대조연구

-{입다, 쓰다, 신다}와 {きる, かぶる, はく}를 대상으로-

지도교수 김 희 섭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수 민

김수민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2월



주 심 문학박사 채영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곽진석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희섭 인

차 례

국문요약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연구	4
2. 이론적 배경.....	8
2.1. 대조언어학.....	8
2.2.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9
3. 한국어 착용동사 의미분석.....	10
3.1. {입다}.....	11
3.2. {쓰다}.....	17
3.3. {신다}.....	22
3.4. 결론.....	24
4. 일본어 착용동사 의미분석.....	26
4.1. {きる}.....	26
4.2. {かぶる}.....	31
4.3. {はく}.....	37
4.4. 결론.....	38
5. 한일 착용동사 의미대조	40

6. 결론.....	48
◆ 참고문헌.....	52
◆ Abstract.....	55



표 차 례

[표 1] ‘입다’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13
[표 2] ‘입다’의 확장의미의 의미분석표.....	15
[표 3] ‘입다’의 의미구조도.....	16
[표 4] ‘입다’의 인지적 의미 확장.....	17
[표 5] ‘쓰다’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18
[표 6] ‘쓰다’의 확장의미의 의미분석표.....	20
[표 7] ‘쓰다’의 의미구조도.....	21
[표 8] ‘쓰다’의 인지적 의미 확장.....	22
[표 9] ‘신다’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23
[표 10] ‘きる’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27
[표 11] ‘きる’의 확장의미의 의미분석표.....	29
[표 12] ‘きる’의 의미구조도.....	30
[표 13] ‘きる’의 인지적 의미 확장.....	30
[표 14] ‘かぶる’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32
[표 15] ‘かぶる’의 확장의미의 의미분석표.....	34
[표 16] ‘かぶる’와 결합하는 서술 주체.....	34
[표 17] ‘かぶる’의 의미구조도.....	35
[표 18] ‘かぶる’의 인지적 의미 확장.....	36
[표 19] ‘はく’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38
[표 20] ‘입다’와 ‘きる’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대조표.....	40
[표 21] ‘입다’와 ‘きる’의 확장의미 대조표.....	41
[표 22] ‘입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きる’에 대응하는 한국어.....	41

[표 23] ‘입다’와 ‘きる’의 인지적 의미확장 대조표·····	42
[표 24] ‘쓰다’와 ‘かぶる’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대조표·····	43
[표 25] ‘쓰다’와 ‘かぶる’의 확장의미 대조표·····	44
[표 26] ‘쓰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かぶる’에 대응하는 한국어·····	45
[표 27] ‘쓰다’와 ‘かぶる’의 인지적 의미확장 대조표·····	45
[표 28] ‘신다’와 ‘はく’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대조표·····	46
[표 29] ‘신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はく’에 대응하는 한국어·····	47
[표 30] ‘신다’와 ‘はく’의 의미영역·····	47



국문 요약

한일 착용동사의 의미대조연구

-{입다, 쓰다, 신다}와 {きる, かぶる, はく}를 대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착용동사의 의미 양상을 일본어 착용동사와 대조하여 한·일 착용동사 간에 나타나는 의미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있다. 나아가 인지미론적 관점에서 착용동사의 원형적 의미와 그 확장 의미까지 살펴 언어에 담긴 한국인과 일본인의 피복류에 대한 인지적 사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밝히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착용동사 중에서 ‘입다, 쓰다, 신다’의 3개와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 ‘きる(입다), かぶる(쓰다), はく(신다)’를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착용동사의 경우 착용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착용동사가 취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대응관계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각 동사가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의미가 확장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입다’와 일본어 ‘きる’는 그 착용대상에서 [상의], [상하복]이라는 의미자질을 공유하는 반면 차이점으로는 한국어 ‘입다’가 [하의]를 가지고 일본어 ‘きる’는 [하의]를 가지지 않는 대조를 보였다. 착용부위도 ‘입다’는 [상반신], [하반신], [전체]인 반면에 ‘きる’는 [상반신], [전체]이다. 확장의미에서 ‘입다’와 ‘きる’는 ‘받음’의 의미를 공통으로 가지나 ‘입다’는 [±구체적], [±긍정적], ‘きる’는 [-구체적], [±긍정적]인 의미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입다’에 대응하는 일본어는 ‘きる, 負う, 受ける, 服す’ 등이고, ‘きる’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입다, 쓰다’ 등이다. ‘입다’와 ‘きる’는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는 원형의미에서 ‘추상적인 대상을 받음’의 의미로 확장되는 점은 공

통적이나 ‘입다’는 ‘몸에 구체적인 상처가 생김’에서 ‘마음에 추상적인 상처가 생김’으로 한 단계 더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쓰다’와 일본어 ‘かぶる’가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착용대상은 [모자]와 [탈]이고 한국어 ‘쓰다’는 개별적으로 [안경]을 선택할 수 있다. 착용부위는 [머리]와 [얼굴]로 동일하다. 확장 의미로 넘어가 [먼지], [가루]와 [불명예]등이 공통 논항이다. 그러나 ‘쓰다’는 개별적으로 [우산] 등을 선택하여 ‘かぶる’보다 더 많은 착용대상과 호응을 이룬다. ‘쓰다’와 ‘かぶる’의 가장 큰 차이는 서술의 주체가 ‘쓰다’는 ‘사람’만이 올 수 있고 ‘かぶる’는 ‘사람’외에도 다른 대상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かぶる’는 구체적인 서술 주체인 ‘의류, 사진’과 추상적인 주체 ‘색, 소리, 언어, 성질’ 등과 호응하여 ‘덮음’에서 ‘겹침, 중복’의 의미로까지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어 ‘かぶる’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쓰다, 겹치다, 흐려지다’를 제시할 수 있고, 한국어 ‘쓰다’에 대응하는 일본어는 ‘かぶる, かける, さす, 受ける’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 의미 확장에서 ‘쓰다’와 ‘かぶる’는 ‘덮음’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가진다. 그러나 ‘쓰다’는 ‘가림’에서 ‘차단’으로, 나아가 ‘보유’의 의미로 의미 확장을 보이고 ‘かぶる’는 ‘덮음’에서 ‘겹침’으로 의미 확장을 보인다.

‘신다’와 ‘はく’의 공통 착용대상은 [신발], [양말]이다. 그러나 ‘はく’는 한국어에서는 ‘입다’의 의미자질인 [하의]를 착용의 대상으로 삼는다. 단, 착용부위는 [발]과 [하반신]으로 동일하다. ‘신다’는 ‘はく’와 대응하고 ‘はく’는 ‘신다, 입다’와 대응한다. 그러므로 ‘はく’는 ‘신다’의 의미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의미영역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다’와 ‘はく’는 원형의 의미에서 착용부위와 착용대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의미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지적 사고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1.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착용동사¹⁾의 의미 양상을 일본어 착용동사와 대조하여 한·일 착용동사 간에 나타나는 의미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있다. 나아가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착용동사의 원형적 의미와 그 확장 의미까지 살펴 언어에 담긴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밝히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착용동사는 인간생활을 대표하는 의식주 중 의생활에 속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며, 또한 이런 이유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도 기초어휘에 속한다.²⁾ 한국어의 착용동사는 착용대상과 착용부위 등에 따라 동사가 결정된다. 이러한 한국어의 개별적인 특징-착용대상과 착용부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착용동사를 사용하는-은 ‘옷이나 옷 따위를 신체에 착용함’을 표현할 때 ‘porter’라는 하나의 동사만을 사용하는 불어나, ‘wear, put on’을 사용하는 영어와 구별된다. 일본어도 한국어와 같이 착용동사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³⁾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영어

1) 천시권(1983)에서 ‘착탈어’라 함은 신체를 중심으로 한 의류의 장신구의 착탈에 관한 어휘를 말한다. 김준기(2003)에서는 신체에 옷이나 그 밖의 장식품이 착탈되는 어휘를 ‘착탈어’라 지칭하고, 착탈어 가운데 [+신체부착성]의 의미속성을 가지는 단어들을 ‘착용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착용어’를 ‘착용동사’라 하여 연구를 전개하기로 한다.

2) 논의대상이 되는 ‘입다, 쓰다, 신다’는 국립국어연구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의 초급 어휘에 속한다.

3) A. E. Backhouse(1981)에 따르면 영어의 착용동사 ‘put on’에 비해 일본어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orresponding to the single English verb *put on*, Japanese here employs eight different lexemes. (Additionally, verbs such as *musubu* 'tie', *maku* 'eind', *nuru* 'smear', *haoru* 'throw around(the shoulders)') also occur in similar collocations, but they are not translation-equivalents of *put on*.

나 불어 등의 언어에 비해 착용동사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는 반면에, 착용동사가 선택하는 착용대상, 즉 논항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어인 일본어의 습관을 한국어에 그대로 전이시켜 오류를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착용어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 혹은 한국어와 불어 등의 연구에 비해 여전히 그 수가 많지 않다. 玉城繁徳(1975)와 천시권(1983) 등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조하고 있지만 양국어의 단순한 일대일 대응을 제시할 뿐이다. 따라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바람직한 어휘 교육을 위해서도 한·일 착용어휘의 대조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착용동사 중에서 ‘입다, 쓰다, 신다’의 3개와 이에 대당하는⁴⁾ 일본어 ‘きる(입다), かぶる(쓰다), はく(신다)’를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각각의 동사들은 그 의미에 따라 다시 ‘원형의미(proto-typical meaning)’와 ‘확장의미(extended meaning)’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원형의미’란 ‘피복을 신체에 착용함’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 ‘원형의미’에서 의미가 파생된 것을 ‘확장의미’라 규정하였다.⁵⁾ 그리고 한일 각각의 대당표현들, 즉 한국어의 ‘입다, 쓰다, 신다’와 일본어의 ‘きる, かぶる, はく’를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로 구분하여 그 대응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때 착용동사의 경우 착용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특히 착용동사가 취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각 동사가 원형의미

4) 한 언어 내에서 의미의 유의성을 문제로 삼는 경우와 이언어 간에서 비교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이를 평행적으로 생각해보면 K와 K'(혹은 J와 J')가 유의 관계에 있을 때, 한 언어에서는 ‘유의어’로 나타낼 수 있겠고, 2언어 간에는 ‘대당어’ 혹은 ‘대당 표현(counterparts)’이라는 술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K와 J에 있어서 그 사용 조건이 일치하면 상호적인 ‘대당 표현’이라 할 수 있다.

5) 다의관계에 대한 용어는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기본의미’와 ‘파생의미·전이의미’,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등이 혼용되어 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임지룡(2009)에 따라 ‘원형의미(proto-typical meaning)’와 ‘확장의미(extended meaning)’를 사용하여 전개하기로 한다.

에서 확장 의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의미가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지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착용대상에 해당하는 한국어 논항의 추출에 앞서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통해 개별 동사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분석에 이용될 논항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사전」(2007)과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2001)에서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일본어 착용동사의 경우에는 松村明(2006)의 「大辭泉」과 「大辭林」을 기본으로 그 의미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한·일어간 대조에서는 「朝鮮語大辭典」(1985)을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예문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사전들에서 발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보충예문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어는 ‘21세기 세종 말뭉치⁶⁾’와 ‘CETConc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트연구소 용례추출기)⁷⁾’에서 찾아 덧붙였다. 일본어는 ‘일본어 코퍼스 검색⁸⁾’에서 옮겨 왔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된다. 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대조언어학과 의미론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어 착용동사 ‘입다, 쓰다, 신다’의 원형의미와 그 확장의미를 정리한다. 4장에

6) 21세기 세종계획이란, 문화관광부가 국립국어원 및 관련 학계와 더불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해 온 국어 정보화 사업으로, 구어 말뭉치 분석, 전자사전 개발, 한민족 언어 정보화, 전문 용어 정비 등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www.sejong.or.kr/).

한편 말뭉치(corpus)란, 언어를 연구하는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재료로서, 언어의 본질적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집합을 뜻한다(서상규·한영균, 1999). 영어의 코퍼스(corpus)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로 연구자에 따라 말모듬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말뭉치는 자료의 가공 여부에 따라 원시 말뭉치(raw corpus)와 태깅된 말뭉치(tagged corpus)로 나눌 수 있다(<http://www.sejong.or.kr/> 참고)

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용례 추출기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ikc.korea.ac.kr/cgi-bin/kwic/kwic.cgi>

8) 일본어 코퍼스 검색 (<http://transkj.com>)은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이한섭 교수팀이 구축하는 병렬코퍼스이다. 한일어의 자동 번역과 대조 연구, 언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내용은 현대 한국어와 일본어를 文(sentence) 단위로 정렬한 병렬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구축 대상 자료는 현대 한일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여러 장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서는 ‘입다, 쓰다, 신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착용동사 ‘きる, かぶる, はく’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각각 살펴본다. 5장에서는 3, 4장에서 살펴 본 한일 착용동사의 의미양상을 바탕으로 한일 착용동사를 대조하여 그 대응관계와 함께 두 언어에 담긴 인지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다.

1.2. 선행연구

한국어 착용동사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천시권(1983), 김기석(1996), 김준기(2003), 신현숙(2005), 정선균(2007)이 있다.

천시권(1983)에서는 착탈어를 논의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의 착탈어⁹⁾의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그 체계도를 완성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의 대비를 통해 한국어의 착탈어가 두 언어에 비해 풍부함을 밝혔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가 한국어와 영어 혹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일대일 대응시켜 제시하는 것에 머물러, ‘입다’와 ‘きる(kiru)’의 체계구조나 의미규명의 비교·대조와 같은 미시적인 부분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조분석이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를 세밀하게 대조하여 학습상에 일어나게 될 어려움과 오류들을 미리 예측하는 데에 그 기본적인 목적을 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휘의 원형적 의미뿐만 아니라 확장의미 간에도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9) 천시권(1983)에서 ‘착탈어’라 함은 ‘신체를 중심으로 한 의류와 장신구의 착탈에 관한 어휘’를 말한다. 김준기(2003)에서는 ‘착탈어’ 가운데 [+ 신체부착성]의 의미속성을 가지는 단어들을 ‘착용어’라 하여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피복을 신체에 착용함을 나타내는 동사’를 ‘착용동사’라 하여 논의를 전개하겠다. 여기에서 ‘피복’이란, 몸을 감싸거나 몸에 걸치는 일체의 것으로 옷모자장갑양말신 및 머플러 등 몸에 걸친 것 전부를 말한다. ‘의복’은 신체의 구간부(區間部)에 착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 반해, ‘피복’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모자장갑신 등 신체에 착용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김영숙, 1998).

김기석(1996)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착용의미장을 대조의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확한 대비를 위하여 일본어를 참고항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착용동사를 착용부위에 따라 나눈 후, 중국어는 ‘戴, 穿’의 2분법으로, 한국어 ‘입다, 쓰다, 신다’와 일본어 ‘きる, かぶる, はく’는 3분법으로 나누어, 한국어/일본어와 중국어의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착용동사를 3분법으로 나누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착용부위를 고려한다면 한국어와 일본어도 동일한 체계를 가진다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김준기(2003)는 착용동사를 대상으로 언어 간의 어휘적 구조체계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어의 착용어장의 의미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착용대상, 착용위치, 착용범위, 착용의도’를 중심으로 ‘기본적 의미’를 살펴보고 ‘대상의 속성, 대상의 가치, 행동주의 의도, 화자의 태도, 행동주’ 등을 중심으로 ‘전의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본어나 영어 등의 다른 언어와의 대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어 착용동사가 가지는 의미자질의 속성을 분류하여 체계를 세워 의미분석을 객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착용동사를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연구인 정선균(2007)에서는 ‘입다’와 ‘벗다’의 다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입다’와 ‘벗다’ 반의 관계는 원형의미에 국한됨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착용동사 분석의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였다는 선도적인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착용동사인 {입다/벗다}의 두 단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 외에 한국어 {입다/벗다}의 형태/통사/의미/화용 정보를 구축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신현숙(2005)의 연구 등이 있다.

일본어학 혹은 일본어교육학 영역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 착용동사를 대

조한 연구는 매우 적다. 다만 일본어와 영어의 착용동사를 비교한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다. 宮島達夫(1989)에서는 착용동사를 포함하여 일본어 동사의 의미·용법의 기술적 연구를 행하였다. 착용동사는 착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동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동사의 의미 특징을 기술하였다. ‘きる, かぶる, はめる, はく, つける’를 논의대상으로 들고 이는 다시 착용부위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눈여겨 볼 것은 ‘きる, かぶる, はく’외에도 ‘はめる’를 논의대상으로 포함하여 손을 착용부위로 갖는 동사로 구분하였다. 또한 ‘つける’를 ‘きる, かぶる, はめる, はく’의 상위어로 규정짓고 ‘きる, かぶる, はめる, はく<つける’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각 동사가 사용된 문학작품을 실례로 들어 어떠한 착용대상을 취하는지를 제시하였다. 影山太郎(1992)에서는 일본어와 영어의 착탈어를 비교하였다. 어휘의 의미보다는 의미구조를 밝히는데 주력하여 일본어와 영어의 착탈어 의미구조를 도식화하였다. 影山太郎(1992)에 따르면 ‘의류의 착탈’이라 하여 ‘착의’와 ‘탈의’로 나누어 그 동사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을 구조화시켜 문법체계에서 사용하는 수형도로 도식화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한국어학 및 한국어교육학 영역, 그리고 일본어학 및 일본어 교육학 영역에서 착용동사를 대상으로 한 두 언어 간의 체계적인 대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연구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하는데 주력하여, 논의의 대상을 ‘입다, 신다, 쓰다’로 넓히고(따라서 일본어의 경우에도 ‘きる, かぶる, はく’로 대상을 선정), 대조의 범위도 착용부위뿐만 아니라 착용대상으로까지 넓혀 두 언어의 어휘의미상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대조하였다.

‘입다, 쓰다, 신다’와 ‘きる, かぶる, はく’의 착용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착용대상이 유사하다고 하여 의미양상에서도 완전한 일치를 보이지는 않는

다. 그러므로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그 미세한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 언어사용자가 두 언어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 연구는 외국어 학습 및 번역에서 적절한 대응 어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대조언어학

이미숙(2005)의 정의를 따르면, ‘대조연구(對照研究, Contrastive Study)’란 체계와 구조가 다른 둘 이상의 언어를 대조·대비함으로써 언어 간의 일치 및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대조분석의 장점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는 생각지 못한 사실이 다른 언어와의 대비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문적 차원에서는 물론, 목표 외국어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조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음운’에서 ‘어휘’, ‘문법’, ‘의미’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방향인 어휘 대조 분석은 두 언어 사이에서 서로 대응하는 어휘 항목에 대해 각각의 의미, 용법의 차이 및 공통점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둔다. 물론 응용언어학적 관점의 어휘 대조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은 모든 어휘 항목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휘의 수가 광대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어휘를 대상으로 한 대조 연구는 제한된 일정 어휘를 대상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이 결과들을 응용하여, 언어교육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2.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그 의미가 파생되거나 확장되어 ‘다의어’를 형성하게 된다.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에 사용되면서 단순한 문맥적 변이로 포괄할 수 없을 때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이 때 구조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으며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원형의미라 볼 수 있다. 원형의미는 인지적으로도 단순한 특징을 보인다. 즉, ‘원형의미’(proto-typical meaning)란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를 말하며, ‘확장 의미’(extended meaning)란 파생적이고 전이된 의미를 말한다. 이 때, 하나의 어휘항목이 둘 이상의 관련된 의의를 지닌 낱말로써, 의미의 다른 모습을 같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의관계’라 한다.

다의관계는 머릿속 어휘사전이 작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명칭의 무한한 확장을 방지해 주는 인지장치로, 낱말의 의미를 습득하고 확장하는 인간 인지구조의 해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의 낱말이 단일 범주에 속하는가, 혹은 다의 범주에 속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그 한계가 불분명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다의관계’(polysemy)란 하나의 ‘어휘항목’(lexical item)이 둘 이상의 관련된 ‘의의’(sense)를 지닌 것이며, 다의관계에 있는 낱말을 ‘다의어’(polysemous word)라고 한다. 여기서 ‘둘 이상의 의의’란 다름을 뜻하며, ‘관련된 의의’란 같음을 뜻하는데, 그중 의미의 다른 모습을 같음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의관계이다(임지룡, 1996).

3. 한국어 착용동사의 의미 분석

영어와 불어의 착용동사는 ‘wear, put on’과 ‘porter’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어 착용동사는 착용대상에 따라 ‘입다, 쓰다, 신다, 감다, 걸다, 걸치다, 끼다, 달다, 매다, 차다’ 등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한국어의 착용동사에 관한 논의는 연구자에 따라 연구대상인 착용동사의 어휘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¹⁰⁾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착용동사를 대표하는 ‘입다, 쓰다, 신다’를 논의대상으로 선정하고¹¹⁾ 각 동사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각 사전에 따라 원형의미의 설정 기준이 다르나 이 연구에서는 ‘의류, 장식품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에 부착함’을 원형의미로 설정한다. 착용동사의 원형의미는 기본적으로 착용부위와 착용대상을 구분하여 의미자질로 삼는다. 확장의미는 원형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신체부착]이라는 공통의 의미 아래, 의류가 아닌 다른 대상물이 신체에 부착되는 것을 나타낼 것이

10) 착용어장 연구와 논의대상 (착용동사는 가나다 순)

연구자	착 용 동 사
천시권 (1983)	걸다, 꿋다, 끼다, 끼우다, 달다, 두르다, 드리다, 매다, 메다, 신다, 쓰다, 입다, 차다, 하다.
우형식 (2002)	감다, 걸다, 걸치다, 끼다, 매다, 신다, 쓰다, 입다, 차다, 하다.
김준기 (2003)	감다, 걸다, 끼다, 두르다, 매다, 신다, 쓰다, 입다, 차다.

- 11) ‘입다, 쓰다, 신다’는 착용부위에 따라 동사를 선택할 수 있는 착용동사로 우형식(2002)에서는 착용동사 중에서도 ‘입다, 쓰다, 신다’를 ‘부위성 착용동사’로 구분한다. ‘부위성 착용동사’는 착용동사류에서 가장 일반적인 용법을 지니고 있으며, 착용동사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는 한국어의 ‘입다, 쓰다, 신다’에 해당하는 일본어 ‘きる, かぶる, はく’도 착용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동사로 구분하는 점에서 같다.(影山太郎, 1992: ‘きる, かぶる, はく’にとって、身体部分は義務的要素であり、任意的に編入される。これらの動詞の区別は身体部分によって決定される。‘きる, かぶる, はく’에서 신체부분은 의무적요소이고 이 동사들의 구별은 신체부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양국어가 모두 ‘부위성 동사’로 분류되는 것은 같으나 그 착용부위의 구분까지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지 밝히고자 위 동사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 그러므로 원형의미에서는 착용부위와 착용대상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확장 의미는 의류를 제외한 어떠한 대상과 호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인지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의미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양상을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착용대상에 초점을 두는 것은 착용동사는 착용부위나 착용대상에 따라 동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착용동사와 결합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의미 및 파생된 확장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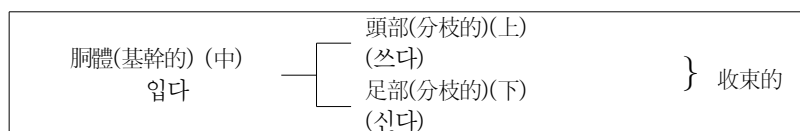
3.1. {입다}

‘입다’는 착용동사를 대표하여 [+신체부착성]을 나타내는 ‘쓰다, 신다’의 상위어이다.¹²⁾

‘입다’는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를 원형의미로 하여 목적어로 취하는 명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먼저 원형의미의 대상이 되는 ‘의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확장의미의 다의구조를 도식화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까지 파생되는 과정을 통해 인지적 의미확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다’를 사전¹³⁾에서 찾아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천시권(1983:6~7): ‘입다’는 동체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간적인語인 동시에 신체의 중간부분에 위치한다. ‘신다’는 하부에 위치하니 분지적인 것이라 생각되며 기간적인 것과 대를 이루고 있고 ‘쓰다’는 두부이고 가장 상부에 위치하여 역시 분지적으로 되므로 다시 이 관계를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1]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

[2] (도움, 손해 따위와 같은 말을 목적으로 하여) 받거나 당하다.

여기에서 [1]이 [+신체부착성]으로 ‘입다’의 원형의미가 되고 [2]가 확장
의미가 된다. 우선 ‘입다’의 원형의미부터 살펴보자.

(1)

가. 동생은 티셔츠를 입고 나갔다.

나. 그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다.

다.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위의 예문에서 ‘입다’는 ‘티셔츠, 청바지, 작업복’과 호응을 이룬다. (1가)의
‘티셔츠’는 ‘상반신’에 착용하는 의류이고 (1나)의 ‘청바지’는 ‘하반신’에
착용하는 의류이다. (1다)의 ‘작업복’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포함하여 몸 ‘전
체’에 착용하는 의류이다.

이와 같이 ‘입다’는 착용대상이 [의류]¹⁴⁾ 자질을 가지며 ‘상반신’에 착용할
수 있는 의류, ‘하반신’에 착용할 수 있는 의류, ‘전체’에 착용할 수 있는 의
류 등을 착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착용부위는 [상반신]과 [하반신],
[전체]임을 알 수 있다.

‘입다’의 착용대상이 될 수 있는 [의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앞으로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경우, 본고에서 ‘사전적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발췌
한 내용을 말한다.

14) 김창준(199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류, 의복, 피복’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의류’는 ‘사람이 몸
에 걸치는 여러 가지 옷의 총칭’을 말한다. ‘의복’은 ‘신체의 대부분을 덮어 보호하는 옷’을 말한
다. ‘피복’은 ‘의복보다 광범위하게 미치며 인체를 감싸거나 혹은 그 일부에 걸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

[표 1] ‘입다’ 원형의미의 착용대상¹⁵⁾

고유어 / 한자어로 사용되는 옷	옷	[지푸라기옷][비옷][비단옷/털옷/유리옷/베옷/모시옷/면옷][봄/여름/가을/겨울옷][보정)속옷/잠옷][갑옷]
	복	[소복/상복][유아복/아동복/성인복/내복][실내복/실외복][양복/한복/사복(私服)][교복/체육복/교련복][법복/경찰제복/소방관복][방탄복/우주복/잠수복][예비군복/군복/죄수복][수술복/환자복/임부복][운동복/발레복/수영복/헬스복/에어로빅복/도복/합창복/연주복/단원복/파티복/작업복][예복]
	의(衣)	[상의(上衣)/하의(下衣)][수의(壽衣)][우의(雨衣)][내의(內衣)]
	장(裝)	[양장(洋裝)][정장(正裝)]
	바지	[청바지/면바지/나팔바지/정장바지/일자바지/디스코바지/힙합바지/반바지/칠부/팔부/오부 바지]
	치마	[앞치마/속치마][청치마/면치마/정장치마]
	-기	[두루마기][누더기]
외래어 / 외국어로 사용되는 옷	상하복	[드레스(dress)/웨딩드레스(wedding dress)][가운(gown)/슬립(slip)/파자마(pajamas)][트레이닝(sportswear)][원피스(one piece)/투피스(two piece)]
	외투	[망토(manteau)][재킷(jacket)/잠바·점퍼(jumper)][코트(coat)/오버 코트(over coat)/레인코트(rain coat)]
	상의	[티셔츠(T-shirts)/와이셔츠(Y-shirts)/드레스셔츠(dress shirts)][블라우스(blouse)][스웨터(sweater)/카디건(cardigan)/니트(knit)/조끼(chokki)][브래지어(brassiere)/런닝(shirts for running)]
	하의	[스커트(skirt)/미니스커트(mini skirt)/롱스커트(long skirt)][삼각/사각/T팬티(panties)]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입다’는 ‘옷, 복(服), 의(衣), 장(裝), 바지, 치마,

15) 정선균(2007)에서 ‘입다’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를 가져와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두루마기’등과 같이 고유어나 한자어로 된 대상물과 자연스럽게 호응함을 알 수 있다. ‘입다’는 또한 고유어나 한자어로 사용되고 있는 옷 외에도 ‘드레스(dress), 코트(coat), 티셔츠(T-shirts), 스커트(skirt)’등과 같이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대상물과도 자연스럽게 호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대상물이 옷일 때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입다’와의 호응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정선균, 2007).

다음으로 ‘입다’의 확장의미를 살펴보자.

(2)

- 가. 우리 형제는 자라나면서 큰댁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다.
- 나. 학생은 교사의 영향을 입는다.
- 다. 이곳 송씨 집안은 동학 농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산 증거가 되고 있다.
- 라. 인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마. 상을 입다.

‘입다’의 확장의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먼저 대상의 속성을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2라)의 ‘중상’은 ‘구체적’이고 나머지 ‘은혜, 영향, 피해, 상(喪)’은 ‘추상적’이다. 다음으로 대상의 가치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다. ‘상처’를 뜻하는 ‘중상, 화상, 부상’과 같이 대상이 ‘구체적’일 때는 ‘부정적’인 성격을 띤다. 반면에 ‘은혜, 영향, 피해, 상’과 같이 ‘추상적’인 대상과 호응할 때는 ‘긍정적’인 성격을 띤 대상과 ‘부정적’인 성격을 띤 대상이 모두 올 수 있다. (2가)에서 ‘은혜’는 ‘긍정적’이며 (2다)의 ‘피해’, (2마)의 ‘상’은 ‘부정적’이다. (2나)의 ‘영향’은 문맥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

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요약하면, ‘입다’의 대상이 ‘구체적’일 때는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입다’의 대상이 ‘추상적’일 때는 ‘긍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을 모두 지닌다. 대상의 속성과 가치를 의미자질로 나타내면, ‘입다’의 확장 의미에서는 대상이 [±구체적]이다. [+구체적]일 때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구체적]일 때는 [±긍정적]의 의미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입다’ 확장 의미의 의미분석표

가치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속성			
[+구체적]	-	-	[상처][상(傷)]
[-구체적]	[은혜][혜택]	[영향]	[타격][해][손] [상(喪)]

(2) ’

가’. 우리 형제는 자라나면서 큰택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 학생은 교사의 영향을 받는다.

다’. 이곳 송씨 집안은 동학 농민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산 증거가 되고 있다.

라’. 인부는 중상을 당하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마’. 상을 당하다.

위 (2) ’를 살펴보면 (2)의 ‘입다’는 ‘받다’와 ‘당하다’로 교체가 가능하다. 앞에서 삼은 기준으로 ‘입다’를 대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긍정적]인 대

상은 ‘받음’의 의미를 가진다. [-긍정적]일 때는 ‘당함’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¹⁶⁾

[표 3] ‘입다’의 의미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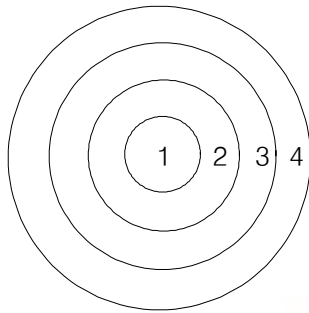


‘입다’의 다의관계를 도식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미 확장을 인지할 수 있다(신현숙, 2005).¹⁷⁾

16) 의미구조도는 정선균(2007:49)의 <‘입다’의 다의 구조도>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기본의미’와 ‘파생의미’를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로 용어를 바꾸고 ‘원형의미’를 간략히 줄여 내용을 달리하였다.

17) 신현숙(2005)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식화하여 의미 확장을 나타내었다.

[표 4] ‘입다’의 인지적 의미 확장



- ① 옷을 몸에 껴거나 두르다
- ② 몸과 마음에 영향을 받다
- ③ 몸에 구체적인 상처가 생김
- ④ 마음에 추상적인 상처가 생김

3.2. {쓰다}

‘쓰다’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 (1)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
- (2)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2]

- (1) 우산이나 양산 따위를 머리 위에 펴 들다.
- (2)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에 덮은 상태가 되다.
- (3) 사람이 죄나 누명 따위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

‘쓰다’는 크게 2가지 뜻으로 나눌 수 있다. ‘엎다/걸다’의 착용의 의미인 [1]이 원형의미가 되고 ‘펴들다/덮다/입다’ 등의 의미를 가진 [2]가 확장의미가 된다.¹⁸⁾

(3)

가. 아이는 빨간 모자를 썼다.

나. 할머니는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는 안경을 쓴다.

다. 얼굴에 복면을 쓴 강도가 은행에 침입했다.

위의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쓰다’의 착용부위는 ‘머리’와 ‘얼굴’이다. 다시 말해, 신체의 목을 기준으로 윗부분에 착용된다. 쓰다’의 착용대상은 크게 ① 머리 위에 엎는 것, ② 얼굴에 걸거나 덮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①에는 (3가)와 같이 ‘모자’ 종류가 여기에 속한다. ② 얼굴에 걸거나 덮는 것으로는 (3나)의 ‘안경’을 비롯하여 ‘안경’류와 ‘탈’류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쓰다’의 착용대상은 모자류, 안경류, 탈류 등과 호응할 수 있다. 착용부위는 [머리]와 [얼굴]로 신체의 목 윗부분을 말한다.

[표 5] ‘쓰다’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119)	갓	[갓][삿갓]
	모자	[등산모자][밀짚모자][야구모자][털모자]
	모(帽)	[베레모][사각모][안전모][중절모]
	안경	[안경][선글라스][수경]
	면(面)	[방독면][복면]

18)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2의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에 덮은 상태가 되다’를 ‘쓰다’[1]과 같은 의미로 분류했으나 ‘먼지’나 ‘가루’는 [의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확장의미로 처리한다.

	탈	[탈][하회탈][각시탈]
2		[마스크][헬멧]
3		[가발]

위의 표에서와 같이 ‘쓰다’는 ‘갓, 모자, 모(帽), 안경, 면(面), 탈’등과 같이 고유어나 한자어로 된 대상물 ‘옷이나 옷 따위’와 자연스럽게 호응함을 알 수 있다. 고유어나 한자어로 사용되고 있는 옷 외에도 ‘마스크(mask), 헬멧(helmet),’등과 같이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대상물 ‘옷이나 옷 따위’와도 자연스럽게 호응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대상물이 ‘옷’일 때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쓰다’와의 호응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쓰다’의 확장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4)

가. 밖에 비가 오니 우산을 **쓰고** 가거라.

나. 광부들이 온몸에 석탄가루를 까맣게 **쓰고** 일을 한다.

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라. 동생은 어머니의 성질을 그대로 **쓰고** 났다.

‘쓰다’의 확장의미의 체계적인 기술을 위해 먼저 대상의 속성을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아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대상은 (4가), (4나)의 ‘우산, 석탄가루’와 같이 ‘구체적’인 것과 (4다), (4라)의 ‘누명, 성질’과 같이 ‘추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다시 ‘긍정적’인 것과 ‘부

19) 이하 각 동사의 원형의미의 착용대상표에서는 1 고유어/한자어로 사용되는 옷 2 외래어/외국어로 사용되는 옷 3 기타의 분류에 따라 숫자만을 기입하도록 한다.

정적'인 것으로 나누면 착용대상이 '구체적'일 때 (4가)의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띠고 (4나)의 '석탄가루'는 온 몸을 더럽힌 것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띤다. 착용대상이 '추상적'일 때 (4다)의 '누명'은 '부정적'이고, (4라)의 '성질'은 문맥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쓰다'의 확장의미의 착용대상은 [$\pm$ 구체적]의 양상을 띤다. 대상이 [$+$ 구체적]일 때에는 [$\pm$ 긍정적]이다. [$-$ 구체적]일 때는 '누명, 혐의'와 같이 [불명예]의 특성을 가져 [$-$ 긍정적]이기도 하고 [성질], [바탕]의 특성을 가져 [$\pm$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²⁰⁾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쓰다' 확장의미의 의미분석표

가치 속성	[+긍정적]	[$\pm$ 긍정적]	[$-$ 긍정적]
[+구체적]	[우산][양산]	-	[먼지][가루]
[$-$ 구체적]	-	[성질][바탕]	[불명예][죄]

'쓰다' 또한 호응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파생됨을 알 수 있는데, 원형의미의 추상화로 인한 '쓰다'의 확장의미를 '덮음'과 '받음'으로 나눌 수 있다. 호응하는 대상이 '우산, 양산' 같은 경우에는 '덮음'에서 파생하여 '비'나 '햇빛'을 막아주는 '차단'을 의미한다. 또한 '탈'과 '면'을 얼굴에 덮어 얼굴을 가리는 것에서 의미가 파생되어 '탈을 쓰다' 등은 내면의 속성까지

20) 이 외에도 '쓰다'의 관용적 의미로 굳어진 표현은 그 대상이 [$+$ 구체적]인 것으로는 '감투를 쓰다, 바가지를 쓰다, 색안경을 쓰다'등이 있고, [$-$ 구체적]인 것은 '굴레를 쓰다'등이 있다. 이러한 관용적 표현들도 '쓰다'가 호응하는 대상과 짝을 이루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확장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가림’을 의미한다. ‘받음’의 의미일 때는, ‘쓰다’가 ‘먼지, 가루’ 등과 호응하여 서술의 주체에 ‘아주 많이 받다’를 의미한다. 또한 ‘누명, 혐의, 죄’와 같은 ‘불명예’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대상들도 외부에서 서술의 주체로 부착되는 ‘받음’의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받음’의 확장의 마지막 단계는 ‘성질’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임을 (4라)의 예문에서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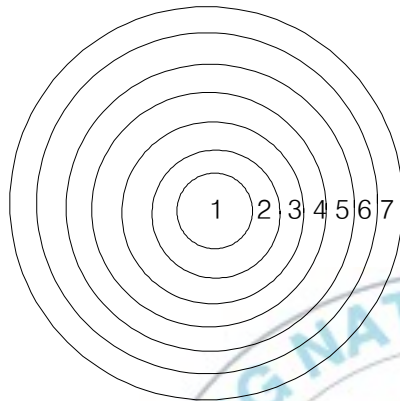
이상 ‘쓰다’의 다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7] ‘쓰다’의 의미구조도



위에서 살펴본 ‘쓰다’의 다의구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쓰다’의 인지적 의미 확장



- ①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
- ②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 ③ 얼굴 등을 가리다
- ④ 우산이나 양산 따위를 머리에 펴 들어 비나 햇빛을 차단하다
- ⑤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 전체에 덮다
- ⑥ 죄나 누명 따위의 불명예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
- ⑦ 성질, 바탕을 받아 지니다

3.3. {신다}

‘신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발에 꿰다.

(5)

가. 어머니는 한복에 버선을 정갈하게 신으셨다.

나. 오랜만에 구두를 신으니 발이 아프다

‘신다’는 ‘발에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5가), (5나)의 ‘버선, 구두’와 같

이 발에 착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다’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래 (6)을 보면 ‘신다’는 ‘스타킹’과도 호응하는데, ‘스타킹’의 종류에 따라 발부터 엉덩이까지 착용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신다’는 ‘발’과 더불어 ‘하반신’도 착용부위가 될 수 있다.

(6)

가. 흰 가발을 쓰고 흰색 스타킹을 신은 사람들이 저녁에 응접실에 모여 환담을 나누고 있다.

‘신다’의 착용대상은 신발류, 양말류 등이다. 착용부위는 [발], [하반신]이다. 여기에서 특이할 점은 ‘신다’는 착용 이외의 확장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에 있다.²¹⁾ 즉, 착용동사 중 ‘신다’는 앞서 살펴본 ‘입다, 쓰다’와 달리 다의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신다’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1	화(靴)	[등산화][방한화][숙녀화][신사화][아동화][운동화][장화][실내화]
	신	[털신][고무신][꽃신][나막신][짚신]
	양말	[양말][버선][덧버선]
2		[스타킹][부츠][하이힐][슬리퍼]
3		[구두]

21) 속어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여자가 사귀던 남자와 일방적으로 헤어지다’라는 뜻이다. ‘신다’가 ‘거꾸로’와 호응하여 관용어와 같이 굳어진 표현이므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예) 남자 친구가 군대에 가자마자 그녀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

3.4. 결론

한국어의 ‘입다, 쓰다, 신다’는 착용동사를 대표하는 동사로 착용부위에 따라 동사가 결정된다. ‘신체에 피복을 부착함’을 각 동사의 원형의미로 보고 그 외의 의미는 확장의미로 구분한다.

‘입다’의 원형의미에서 착용대상은 [상의], [하의], [상하복]이고 착용부위는 [상반신], [하반신], [전체]이다. ‘입다’의 확장의미에서는 [±구체적]인 대상과 호응한다. ‘입다’의 대상이 [+구체적]일 때는 ‘상처, 상’과 같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입다’의 대상이 [-구체적]일 때는 ‘은혜, 혜택’과 같은 [+긍정적], ‘영향’과 같은 [±긍정적], ‘타격, 해, 손, 상(喪)’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양상을 보인다. ‘입다’는 착용대상에 따라 ‘받음’과 ‘당함’의 의미로 확장된다. 이는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는 원형의미에서 ‘몸과 마음에 영향을 받다’, ‘몸에 구체적인 상처가 생김’, ‘마음에 추상적인 상처가 생김’으로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쓰다’의 원형의미에서 착용대상은 [모자], [안경], [면(面)]이고 착용부위는 [머리]와 [얼굴]이다. ‘쓰다’의 확장의미에서 착용대상은 [±구체적]이다. ‘쓰다’의 착용대상이 [+구체적]일 때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구체적]일 때는 ‘누명, 혐의’와 같이 [불명예]의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쓰다’는 [+신체부착성]의 원형의미에서 ‘덮음’과 ‘받음’으로 의미가 확장됨을 알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의 원형의미에서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얼굴 등을 가리다’, ‘우산이나 양산 따위를 머리에 펴 들어 비나 햇빛을 차단하다’,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 전체에 덮다’, ‘죄나 누명 따위의 불명예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 ‘성질, 바탕을 받아 지니다’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다’의 원형의미에서 착용대상은 [신발], [양말]이고 착용부위는 [발]과

[하반신]이다. ‘신다’는 의미가 확장되지 않고 [+신체부착성]의 원형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4. 일본어 착용동사

이 장에서는 일본어 착용동사의 의미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한국어 착용동사 ‘입다, 쓰다, 신다’의 대당표현인 일본어 ‘kiru(きる), kaburu(かぶる), haku(はく)’를 논의대상으로 한다.

3장의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착용동사도 ‘피복을 착용대상으로 하여 신체에 부착함’을 원형의미로 설정한다. 원형의미는 기본적으로 착용부위와 착용대상을 구분하여 의미자질로 삼는다. 나아가 의미가 확장된 경우를 찾아 확장의미로 설정하고 어떻게 확대되는지 의미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きる}

일본어의 착용동사도 한국어와 같이 착용대상에 따라 여러 동사로 분화되어 있다. ‘きる’도 목적어로 취하는 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이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 다의적인 의미를 도식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먼저 ‘きる’의 의미를 사전²²⁾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衣類などを身につける。からだ全体または上半身にまといつける。着用する。(의류 등을 몸에 부착하다. 신체 전체 또는 상반신에 휘감다. 착용하다.)

[2] 物事を自分の身に引き受ける。(사물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이다)

22) 이 논문에서 앞으로 다루는 일본어의 ‘사전적 의미’는 「大辞泉」(2006)에서 발췌하였다.

(「…をきる」の形で) 身に負う。かぶる。(몸에 지다. 쓰다.)
 (「…にきる」の形で) 相手の行爲をありがたく受ける。こうむる。
 (상대방의 행위를 감사히 받다.)

[1]은 ‘의류’를 ‘착용’하는 원형의미에 해당하고 [2]는 확장의미에 해당한다. 먼저 원형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7)
 가. お正月に晴れ着をきる. (설날에 설빔을 입는다.)
 나. 弟はオーバーをきて寝た. (동생은 외투를 입고 잤다.)

(7가)와 (7나)에서 착용대상은 ‘설빔’과 ‘외투’로 신체 전체에 입을 수 있는 옷이다. ‘きる’의 착용대상은 일본전통옷류, 양복류, 외투류, 겉옷류, 속옷류 등이다. 착용부위는 위의 사전적 의미[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체 전체나 상반신이다.

이와 같이 ‘きる’는 착용대상이 [의류]이다. 착용부위는 [상반신], [전체]이다. ‘きる’의 착용대상이 될 수 있는 [의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きる’ 원형의미의 착용대상²³⁾

1	옷	[지푸라기옷][비옷][비단옷/털옷/유리옷/베옷/모시옷/면옷][봄/여름/가을/겨울옷][[보정]속옷/잠옷][갑옷]
	복	[소복/상복][유아복/아동복/성인복/내복][실내복/실외복][양복/

23)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를 위해 착용대상은 한국어의 ‘입다’에서 사용한 [의류]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한복/사복(私服)) [교복/체육복/교련복] [법복/경찰제복/소방관복] [방탄복/우주복/잠수복] [예비군복/군복/죄수복] [수술복/환자복/임부복] [운동복/발레복/수영복/헬스복/에어로빅복/도복/합창복/연주복/단원복/파티복/작업복] [예복]
	의(衣)	[상의(上衣)/하의(下衣)] [수의(壽衣)] [우의(雨衣)] [내의(內衣)]
	장(裝)	[양장(洋裝)] [정장(正裝)]
	-기	[두루마기] [누더기]
2	상하복	[드레스(dress)/웨딩드레스(wedding dress)] [가운(gown)/슬립(slip)/파자마(pajamas)] [트레이닝(sportswear)] [원피스(one piece)/투피스(two piece)]
	외투	[망토(manteau)] [재킷(jacket)/잠바점퍼(jumper)] [코트(coat)/오버 코트(over coat)/레인코트(rain coat)]
	상의	[티셔츠(T-shirts)/와이셔츠(Y-shirts)/드레스셔츠(dress shirts)] [블라우스(blouse)] [스웨터(sweater)/카디건(cardigan)/니트(knit)/조끼(chokki)] [브래지어(brassiere)/런닝(shirts for running)]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kiru(きる)’는 [상하복]을 나타내는 용어 ‘옷, 복(服), 의(衣), 장(裝)’등의 대상물과 자연스럽게 호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의]만을 나타내는 대상물과도 호응이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확장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8)

가. 恩惠に着る。(은혜를 입다.)

나. 濡れ衣を着る。(누명을 입다.)

‘きる’의 확장의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먼저 대상의 속성을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확장의미의 ‘きる’는 ‘구체적’인 대

상과의 결합을 하지 않았다.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8가)의 ‘恩惠(은혜)’와 (8나)의 ‘濡れ衣(누명)’은 ‘추상적’이다. 다음으로 대상의 가치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恩(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반면에 ‘罪(죄), 濡れ衣(누명)’등과 호응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きる’ 확장의미의 의미분석표

속성	가치	[+긍정적]	[-긍정적]
	[+구체적]	-	-
	[-구체적]	[+은혜]	[+죄][+누명]

앞에서 언급한 ‘kiru(きる)’의 사전적의미와 아래 (8가’)를 살펴보면, 확장 의미에서 ‘kiru(きる)’는 ‘받음’의 의미로 파생된 것을 알 수 있다.

(8) ’

가’. 恩惠をこうむる。(은혜를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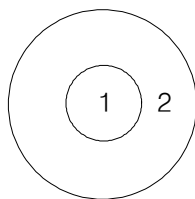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 본 ‘きる’의 다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きる’의 의미구조도



‘きる’의 다의관계를 도식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이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きる’의 인지적 의미 확장



- ① 옷을 몸에 껴거나 두르다
- ② 몸과 마음에 추상적인 대상(고마움, 불명예)을 받다

‘きる’는 ‘옷을 몸에 껴거나 두르다’는 원형의미에서 ‘몸과 마음에 고마움, 불명예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받음’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4.2. {かぶる}

‘かぶる’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頭や顔などにそれを覆うものを載せる。また、全体をすっぽり覆う。
(머리나 얼굴 등에 덮는 것을 얹다. 또는 전체를 폭 덮다)
- [2] 頭からからだ全体にかけて受ける。水・ほこりなどを浴びる。
(머리부터 몸 전체에 걸쳐지다. 물·먼지 등을 받다.)
- [3] 本来は引き受けなくて済むものを、身に受ける。こうむる。しよいこむ。
(원래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받다. 입다. 떠맡다.)
- [4] 寫真で、現像過程の失敗、露出過度やフィルムの欠陥などのため、フィルムや印畫紙の畫面が曇ってぼやける。
(사진에서 현상과정의 실수로 노출과도나 필름 결함 등으로 인해 필름이나 인화지의 화면이 흐려져 희미해지다)
- [5] すでにある色や音などの上に、さらに他の物が加わる。
(이미 있는 색이나 소리 등의 위에, 또 다른 것이 겹치다)
- [6] 一方の發言と、もう一方の發言が重なる。
(한쪽 발언과 다른 쪽 발언이 겹치다)
- [7] 同じようなものがそろそろ。重複する。
(같은 것이 구비되다. 중복하다.)

위의 사전의미에서 ‘피복을 신체에 착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1]은 원형의 의미가 되고 나머지는 확장 의미로 볼 수 있다. ‘かぶる’은 ‘모자’, ‘탈’ 등 신체의 목 윗부분에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이다. 원형의 의미일 때 ‘かぶる’

는 ‘모자’, ‘탈’, ‘왕관’ 등을 착용대상으로 한다.

(9)

가. 暑いので帽子をかぶったほうがいいですよ。

(더우니까 모자를 쓰는 편이 좋아요.)

‘かぶる’의 착용대상이 되는 명사를 모아 도표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4] ‘かぶる’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1	갓	[갓][삿갓]
	모자	[등산모자][밀짚모자][야구모자][털모자]
	모(帽)	[베레모][사각모][안전모][중절모]
	면(面)	[방독면][복면]
	탈	[탈][하회탈][각시탈]
2		[마스크][헬멧]
3		[가발]

다음으로 ‘かぶる’의 확장의미를 살펴보자.

(10)

가. 水をかぶる。(물을 쓰다.)

나. 人の罪をかぶる。(죄를 쓰다.)

다. この寫眞はかぶっている。(이 사진은 흐릿하다.)

라. 会話の音に電車の通過する音がかぶる。

(대화 소리에 전차가 통과하는 소리가 겹치다.)

마. 同時にしゃべりだして言葉が**かぶる**。(동시에 말하기 시작해 말이 겹치다.)

바. キャラが**かぶる**。(캐릭터가 겹치다.)

사. 保護者会でAさんと洋服が**かぶって**しまう。

(보호자회에서 A씨와 양복이 겹었다.)

아. 前の人と発言内容が**かぶる**。(앞 사람과 발언내용이 겹치다.)

‘かぶる’는 지금까지의 착용동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0다)~(10아)에서 볼 수 있듯이, ‘かぶる’는 착용대상뿐만 아니라 서술의 주체가 바뀌어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かぶる’는 ‘かぶる’와 호응할 수 있는 착용대상과 함께 서술의 주체도 알아보고자 한다.

‘かぶる’의 확장의미의 체계적인 기술을 위해 먼저 대상의 속성을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아 위의 예문을 살펴보자.

(10가)의 ‘물’은 ‘구체적’인 대상이다. (10나)의 ‘죄’는 ‘추상적’인 대상이다. 여기에서 다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면 ‘물’이나 ‘가루’는 몸에 써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정적’이고, 추상적인 대상 ‘죄’도 부정적인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 ‘かぶる’의 착용대상은 [±구체적]이고 모두 [-긍정적]이다.

다음으로 서술의 주체를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0다)의 ‘사진’과 (10사)의 ‘양복’은 ‘구체적’인 대상이다. (10라), (10마), (10바)의 ‘소리, 말, 성격(캐릭터)’는 ‘추상적’인 대상이다.

요약하면, ‘쓰다’의 확장의미의 착용대상은 [±구체적]인 양상을 띤다. 대상이 [+구체적]일 때에는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구체적]일 때도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서술의 주체로는 [+구체적]인 [사진], [의류] 등이 올 수 있고, [-구체적]일 때는 [말]과 [소리] 등이 올 수 있다.

[표 15] ‘かぶる’ 확장의미의 의미분석표

가치 속성	[+긍정적]	[-긍정적]
[+구체적]	-	[+먼지][+가루][+진흙][+물]
[-구체적]	-	[+불명예][+죄]

[표 16] ‘かぶる’와 결합하는 서술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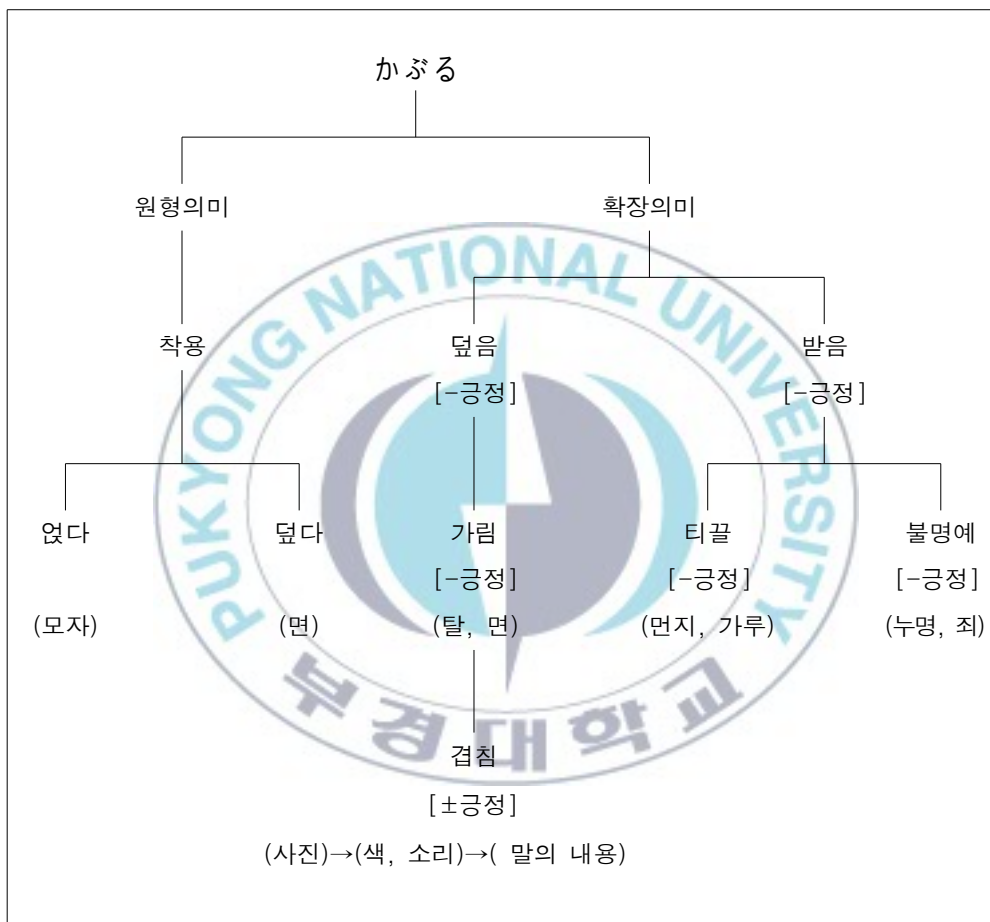
‘かぶる’의 확장의미는 ‘덮음’과 ‘받음’으로 나눌 수 있다. ‘かぶる’와 호응하는 대상이 ‘탈’과 ‘면’일 때, 이를 얼굴에 덮어 얼굴을 가리는 것에서 파생되어 ‘탈을 쓰다’ 등은 내면의 속성까지 ‘가림’을 의미한다. 이 때 서술의 주체가 ‘사진’일 때에는 ‘사진’을 현상하거나 인화했을 때 무언가가 그 ‘사진’을 덮어 흐릿하거나 희미해진 것까지 의미가 확장된다. 의미의 확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서술의 주체가 ‘소리, 말, 대화의 내용’ 등이 오면 그것들이 ‘겹침’을 의미한다.

‘받음’의 의미일 때는, ‘かぶる’가 ‘먼지, 가루, 액체’등과 호응하여 서술의 주체에 ‘흠뻑 받다’를 의미한다. 또한 ‘누명, 죄’와 같은 ‘불명예’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대상들도 외부에서 서술의 주체로 부착되는 ‘받음’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²⁴⁾

24) 또한 ‘かぶる’는 ‘猫(고양이)’, ‘泥(진흙)’등과 짝을 이루어 관용어로 ‘猫をかぶる(내숭을 떨다), 泥をかぶる(비난을 받다)’등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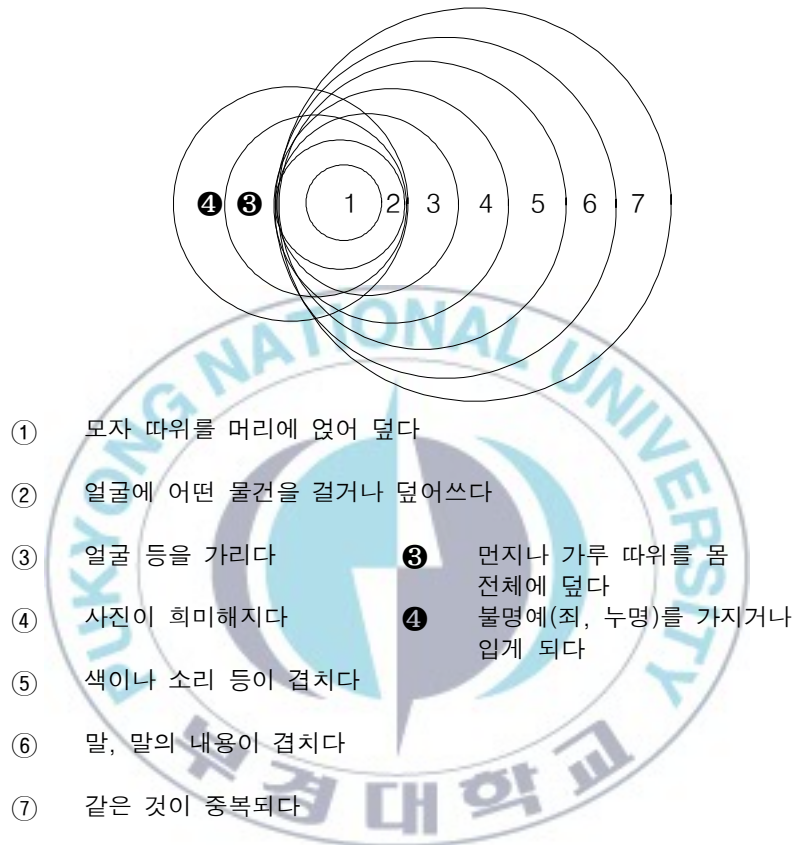
이상 ‘かぶる’의 다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 17] ‘かぶる’의 의미구조도



위에서 살펴본 ‘かぶる’의 다의구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かぶる’의 인지적 의미 확장



‘かぶる’는 호응하는 착용대상과 서술주체에 따라, [+신체부착성]의 원형의미에서 ‘덮음’과 ‘받음’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덮음’으로의 의미 확장은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의 원형의미에서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얼굴 등을 가리다’, ‘사진이 희미해지다’, ‘색이나 소리 등이 겹치다’, ‘말, 말의 내용이 겹치다’, ‘같은 것이 중복되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받음’으로의 의미 확장은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의 원형의미에서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 전체에 덮다’, ‘불명예(죄, 누명)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3. {はく}

‘はく’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 [1] 衣服などを、足先から通して下半身につける。
(의복 등을 발을 통과하여 하반신에 부착하다.)

[2] 履物を足につける。
(신발 등을 발에 부착하다)

[3] 刀・矢などを腰につける。身に帯びる。
(칼, 화살 등을 허리에 부착하다. 몸에 차다)

(11)

가. お気に入りのスカートをはいて出かける。

(좋아하는 스커트를 입고 외출한다.)

나. 長靴をはいて、水たまりの中を歩く。

(장화를 신고 고여 있는 물위를 걷는다)

다. 太刀をはく。

(큰칼을 차다)

(11가)에서 착용대상은 ‘스커트’이고 (11나)에서는 ‘장화’이며 (11다)는 ‘큰 칼’이다. 착용부위를 살펴보면 ‘스커트’는 ‘하반신’이고 ‘장화’는 발이다. (11

다)의 ‘큰칼’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차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원형의미 외에 ‘はく’의 확장의미는 찾을 수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はく’ 원형의미의 착용대상

1	바지	[청바지/면바지/기지바지/나팔바지/정장바지/일자바지/디스코바지/힙합바지/반바지/칠부(칠푼)/팔부/오부 바지]
	치마	[앞치마/속치마][청치마/면치마/정장치마]
	화(靴)	[+등산화][+방한화][+숙녀화][+신사화][+아동화][+운동화][+장화][+실내화]
	신	[+털신][+고무신][+꽃신][+나막신][+짚신]
	양말	[+양말][+버선][+덧버선]
2	하의	[스커트(skirt)/미니스커트(mini skirt)/롱스커트(long skirt)][삼각/사각/T팬티(panties)]
		[+스타킹][+부츠][+하이힐][+슬리퍼]
3		[+구두][+칼][+화살]

4.4. 결론

일본어의 ‘きる, かぶる, はく’는 착용동사를 대표하는 동사로 착용부위에 따라 동사가 결정된다. ‘신체에 피복을 부착함’을 각 동사의 원형의미로 보고 그 외의 의미는 확장의미로 구분한다.

‘きる’의 원형의미에서 착용대상은 [상의], [상하복]이고 착용부위는 [상반신]과 [전체]이다. ‘きる’의 확장의미에서는 [-구체적]인 대상들과 호응할 수 있다. ‘은혜’와 같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과 호응할 수도 있고,

‘죄, 누명’과 같은 [-긍정적]인 대상과도 호응할 수 있다. ‘きる’는 착용대상에 따라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는 원형의미에서 ‘몸과 마음에 추상적인 대상(고마움, 불명예)을 받음’으로 의미가 확장됨을 볼 수 있다.

‘かぶる’의 원형의미에서 착용대상은 [모자], [면(面)]이고 착용부위는 [머리], [얼굴]이다. ‘かぶる’의 확장 의미에서 착용대상은 [+구체적]이다. ‘かぶる’는 ‘먼지, 가루, 물’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과 호응할 수 있고, ‘불명예, 죄’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과도 호응할 수 있다. 이 때 ‘かぶる’와 호응할 수 있는 대상들은 모두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かぶる’는 다른 착용동사들과 달리, 착용대상 뿐만 아니라 서술의 주체가 바뀔 때 따라 의미가 확장되기도 한다. 서술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사진, 의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도 있고 ‘말, 소리’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도 있다. ‘かぶる’는 호응하는 착용대상과 서술주체에 따라, [+신체부착성]의 원형의미에서 ‘덮음’과 ‘받음’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덮음’으로의 의미 확장은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의 원형의미에서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얼굴 등을 가리다’, ‘사진이 희미해지다’, ‘색이나 소리 등이 겹치다’, ‘말, 말의 내용이 겹치다’, ‘같은 것이 중복되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받음’으로의 의미 확장은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의 원형의미에서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 전체에 덮다’, ‘불명예(죄, 누명)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はく’의 원형의미에서 착용대상은 [신발], [양말], [하의]이고 착용부위는 [발]과 [하반신]이다. ‘はく’는 의미가 확장되지 않고 [+신체부착성]의 원형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5. 한일 착용동사 의미대조

한국어와 일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착용에 관련된 동사가 많이 분화되어 있다. 3, 4장에서 각 언어의 착용동사의 착용대상과 착용부위를 중심으로 그 의미양상을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착용대상과 착용부위를 기준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착용동사를 비교·대조하고자 한다.

착용동사의 원형의미에서는 착용대상과 착용부위를 비교·대조하고 확장 의미에서는 의미 확장 양상을 비교·대조하여 대응하는 동사들의 공통의미와 개별의미를 찾아 도표화한다.

우선 ‘입다’는 일본어의 ‘きる’와 대응한다. 착용대상에서 [상의], [상하복]을 공통의 의미자질로 갖는다. 그러나 ‘입다’의 착용대상으로 올 수 있는 ‘치마’, ‘바지’ 등의 [하의]는 ‘きる’의 의미자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착용부위도 ‘입다’는 [상반신], [하반신], [전체]인 반면에 ‘きる’는 [상반신], [전체]이다.

확장의미에서 ‘입다’와 ‘きる’는 ‘받다’의 의미를 공통으로 가진다. 그러나 호응하는 대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입다’의 대상은 [+구체적], [+긍정적]을 의미자질로 삼고 ‘きる’는 [-구체적], [+긍정적] 의미양상을 보인다.

‘입다’와 ‘きる’의 공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착용대상과 개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착용대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0] ‘입다’와 ‘きる’ 원형의미의 착용 대상 대조표

착용부위	착용대상	입다	きる
전체	상하복	○	○
상반신	상의	○	○
하반신	하의	○	-

원형의미의 착용대상에서 ‘바지’와 ‘치마’ 등 하반신에 착용하는 대상을 ‘きる’는 선택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입다’와 ‘きる’는 착용부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입다’와 ‘きる’ 확장 의미 대조표

논 항	입 다	きる
은 헤	○	○
상 처	○	負う
손 상	○	負う
피 해	○	負う
영 향	○	受ける
죄	쓰다	○
누 명	쓰다	○
상(喪)	○	服す

[표 21]을 통해 ‘입다’와 ‘きる’의 확장 의미는 논항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입다’가 ‘중상, 화상, 부상’ 등의 ‘구체적’인 ‘상처’에서 ‘상(喪)’으로 ‘추상적’인 ‘상처’까지 ‘상처’에 관한 대상을 취할 수 있는 반면에 ‘きる’는 ‘상처’의 의미를 가진 대상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장 의미의 ‘입다’에 대응하는 일본어는 ‘きる’를 비롯하여 ‘負う, 受ける, 服す’ 등이다. ‘きる’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입다, 쓰다’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표 22] ‘입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きる’에 대응하는 한국어

입다 → きる	きる → 입다
---------	---------

→ はく → 負う → 受ける → 服す	→ 쓰다
-------------------------------	------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에 담긴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고도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앞 장에서 각 동사가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입다’와 ‘きる’도 언어 차이에서 기인하여 사고의 확장양상도 차이를 알 수 있다. ‘입다’는 ‘어떠한 대상을 신체에 부착함’을 공통의미로 가지고,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는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받다’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때, 작용부위가 ‘몸’에서 ‘마음’으로 확장되었고 작용대상이 ‘의류’에서 ‘추상적’인 ‘영향’으로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몸에 구체적인 상처가 생김’이 ‘마음에 추상적인 상처가 생김’으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확장되었다. ‘きる’도 ‘어떠한 대상을 신체에 부착함’을 공통의미로 가지고 있으나 의미 확장이 한국어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きる’는 ‘받음’의 의미로 확장되어 ‘몸’에서 ‘마음’으로 ‘구체적’인 ‘의류’에서 ‘추상적인 대상(고마움, 불명예)’으로 확장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입다’와 ‘きる’의 인지적 의미 확장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입다’와 ‘きる’의 인지적 의미 확장 대조표

K	J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 →[몸과 마음에 영향을 받다] →[몸에 구체적인 상처가 생김] →[마음에 추상적인 상처가 생김]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 →[몸과 마음에 추상적인 대상 (고마움, 불명예)을 받다]

*‘K’와 ‘J’는 각각 ‘한국어(Korean)’과 ‘일본어(Japanese)’를 의미함.

두 번째로 ‘쓰다’와 ‘かぶる’의 착용대상과 부위를 비교·대조해 보기로 한다. ‘쓰다’의 착용대상은 [모자], [안경], [마스크] 등이다. 착용부위는 [머리]와 [얼굴]로 신체의 목 윗부분이다. ‘かぶる’의 착용대상은 [모자], [탈]이고 착용부위는 [머리]를 포함한 신체의 목 윗부분이다.

‘쓰다’와 ‘かぶる’는 착용부위에서는 동일함을 보인다. 그러나 착용대상에서 [안경]일 때, ‘쓰다’와 호응관계를 맺으나 ‘かぶる’와는 호응하지 못한다. ‘쓰다’와 ‘かぶる’의 공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착용대상과 개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착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다음 표로 나타내었다.

[표 24] ‘쓰다’와 ‘かぶる’ 원형의미의 착용 대상 대조표

착용부위	착용대상	쓰다	かぶる
머리	모자	○	○
얼굴	안경	○	かける
	면, 탈	○	○
전체	옷	○	○

확장의미에서는 ‘먼지’나 ‘가루’ 등의 몸 전체를 덮는 [+구체적] 대상과도 호응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쓰다’와 ‘かぶる’는 둘 다 호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쓰다’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우산], [양산] 등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죄], [누명], [오명]과는 두 동사 모두 호응이 가능하다.

‘쓰다’와 ‘かぶる’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서술의 주체가 ‘쓰다’는 ‘사람’만이 올 수 있고 ‘かぶる’는 ‘사람’ 외에도 다른 대상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착용동사와 상이한 것으로 ‘かぶる’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서술 주체는 ‘사진’이나 ‘의류’등이 가능하다. ‘写真がかぶる’, ‘服がかぶる’로 나타내어 ‘사진이 흐릿하다’, ‘같은 옷을 입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쓰다’의 확장의미 ‘덮음’에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서술 주체인 ‘의류’를 보면 ‘덮음’에서 ‘겹침, 중복’의 의미로까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의류’는 추상적인 주체 ‘색, 소리, 언어, 성질’ 등으로까지 확장되어 ‘겹침, 중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쓰다’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쓰다’와 ‘かぶる’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다.

[표 25] ‘쓰다’와 ‘かぶる’ 확장의미 대조표

논항	쓰다	かぶる
우 산	○	さす
먼 지	○	○
불명예	○	○
성 질	○	受ける
서술주체	쓰다	かぶる
의 류	겹치다	○
사 진	흐려지다	○
소 리	겹치다	○
색	겹치다	○
언 어	겹치다	○
성 격	겹치다	○
담화내용	겹치다	○

[표 25]를 통해 ‘쓰다’와 ‘かぶる’의 확장의미는 논항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확장의미의 ‘쓰다’에 대응하는 일본어는 ‘かぶる’를 비롯하여 ‘さす, 受ける’이다. ‘かぶる’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쓰다, 겹치다, 흐려

지다'로 나타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표 26] '쓰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かぶる'에 대응하는 한국어

쓰다 → かぶる → かける → さす → 受ける	かぶる → 쓰다 → 겹치다 → 흐려지다
------------------------------------	-----------------------------

앞서 살펴본 '쓰다'와 'かぶる'의 차이점을 통해 의미 확장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쓰다'와 'かぶる'는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얼굴 등을 가리다]→[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 전체에 덮다]→[죄나 누명 따위의 불명예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는 같은 양상으로 의미가 확장된 부분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쓰다'는 '가림'에서 [우산이나 양산 따위를 머리에 펴들어 비나 햇빛을 차단하다]라고 하는 확장을 보이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성질, 바탕을 받아 지니다]라는 추상적인 대상으로의 확장을 보인다. 'かぶる'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아닌 '사물'의 서술의 주체와 결합하여 '덮음'에서 '가림'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나아가 '겹침, 중복'으로까지 'かぶる'의 의미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かぶる'는 서술의 주체가 바뀌는 유일한 착용동사라는 점에서 한국인과 다른 일본인의 사고를 알 수 있다.

[표 27] '쓰다'와 'かぶる'의 인지적 의미 확장 대조표

K	J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얼굴 등을 가리다]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 전체에 덮다]
→[우산이나 양산 따위를 머리에 펴들어 비나 햇빛을 차단하다]	→[죄나 누명 따위의 불명예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
→[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 전체에 덮다]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
→[죄나 누명 따위의 불명예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
→[성질, 바탕을 받아 지니다]	→[얼굴 등을 가리다]
	→[사진 현상 시 무언가가 필름을 덮어 사진이 희미해지다]
	→[색이나 소리 등의 위에 다른 것이 겹치다]
	→[말, 말의 내용이 겹치다]
	→[같은 것이 중복되다]

마지막으로 ‘신다’와 ‘はく’를 비교·대조하기로 한다. 공통의 착용대상은 신발류, 양말류 등이다. 그러나 ‘はく’는 위의 ‘きる’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반신에 착용하는 하의를 착용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착용부위는 [발]과 [하반신]으로 동일하나 ‘신다’는 [하반신]의 대상은 ‘스타킹’이 유일하고, ‘はく’는 모든 하의가 착용대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28] ‘신다’와 ‘はく’ 원형의미의 착용 대상 대조표

착용부위	착용대상	신다	はく
발	신	○	○
	양말	○	○
하반신	하의	입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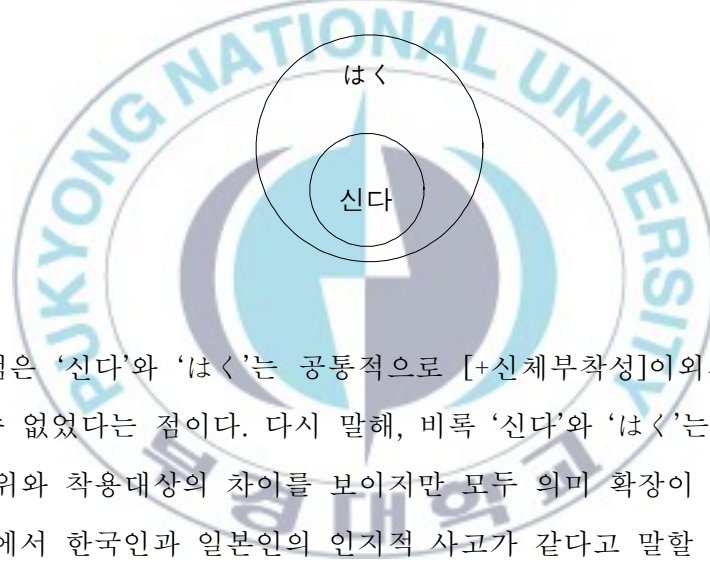
‘신다’는 ‘はく’와 대응하고 ‘はく’는 ‘신다’와 ‘입다’와 대응한다. 그러므로 ‘はく’의 의미영역이 ‘신다’보다 크고 ‘はく’는 ‘신다’의 영역을 모두 포함한

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9] ‘신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はく’에 대응하는 한국어

신다 → はく	はく → 신다 → 입다
---------	-----------------

[표 30] ‘신다’와 ‘はく’의 의미영역



특기할 점은 ‘신다’와 ‘はく’는 공통적으로 [+신체부착성]이외의 확장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록 ‘신다’와 ‘はく’는 원형의 의미에서 착용부위와 착용대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의미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지적 사고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6. 결론

한국어와 일본어는 영어와 불어 등 다른 언어에 비해 착용동사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착용동사가 선택하는 착용대상, 즉 논항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한국어의 착용동사 중에서 ‘입다, 쓰다, 신다’의 3개와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 ‘きる(입다), かぶる(쓰다), はく(신다)’를 논의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동사들은 그 의미에 따라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로 나누었다. 한일 각각의 대당표현들, 즉 한국어의 ‘입다, 쓰다, 신다’와 일본어의 ‘きる, かぶる, はく’를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로 구분하여 그 대응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때 착용동사의 경우 착용대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특히 착용동사가 취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각 동사가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의미가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지적 차이도 유추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입다’와 ‘きる’는 착용대상에서 [상의], [상하복]을 공통의 의미자질로 가지나 ‘입다’는 개별적으로 [하의]를 취할 수 있고 ‘きる’는 [하의]를 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착용부위도 ‘입다’는 [상반신], [하반신], [전체]인 반면에 ‘きる’는 [상반신], [전체]이다.

확장의미에서 ‘입다’와 ‘きる’는 ‘받다’의 의미를 공통으로 가진다. 그러나 ‘입다’는 [±구체적], [±긍정적]이고 ‘きる’는 [-구체적], [±긍정적]인 의미양상을 보인다. 논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상의 차이에 기인하여 확장의미의 ‘입다’에 대응하는 일본어는 ‘きる’를 비롯하여 ‘負う, 受ける, 服す’

등이고 ‘きる’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입다, 쓰다’ 등이다.

‘입다’와 ‘きる’는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는 원형의미에서 ‘추상적인 대상을 받음’의 의미로 확장되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입다’는 ‘몸에 구체적인 상처가 생김’에서 ‘마음에 추상적인 상처가 생김’으로 한 단계 더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둘째, ‘쓰다’와 ‘かぶる’이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착용대상은 [모자]와 [탈]이다. ‘쓰다’는 개별적으로 [안경]을 선택할 수 있다. 착용부위는 [머리]와 [얼굴]로 신체의 목 윗부분이 동일하다.

확장의미에서는 [+구체적], [+전체적]인 [먼지], [가루]와 두 동사 모두 호응한다. 그러나 ‘쓰다’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으로 [우산]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긍정적]인 [죄], [누명], [오명]을 공통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쓰다’는 개별적으로 [혐의], [불명예], [허울], [명예] 등을 선택하여 ‘かぶる’보다 더 많은 착용대상과 호응을 이룬다.

가장 특기할 점은 ‘かぶる’는 착용대상 뿐만 아니라 서술의 주체가 바뀔 때 따라 의미가 확장되어 다른 착용대상과는 상이하다는 것이다. ‘쓰다’와 ‘かぶる’의 가장 큰 차이는 서술의 주체가 ‘쓰다’는 ‘사람’만이 올 수 있고 ‘かぶる’는 ‘사람’ 외에도 다른 대상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かぶる’는 구체적인 서술 주체인 ‘의류, 사진’과 추상적인 주체 ‘색, 소리, 언어, 성질’ 등과 호응하여 ‘덮음’에서 ‘겹침, 중복’의 의미로까지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かぶる’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쓰다, 겹치다, 흐려지다’를 제시할 수 있고, ‘쓰다’에 대응하는 일본어는 ‘かぶる, かける, さす, 受ける’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쓰다’와 ‘かぶる’의 착용대상의 차이로 미루어 의미 확장에서 다른 양상을 보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쓰다’와 ‘かぶる’는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다}→[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얼굴 등을 가리다]→[먼지나 가루 따위를 몸 전체에 덮다]→[죄나 누명 따위의 불명예를 가지거나 입게 되다]로 공통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쓰다’는 ‘가림’에서 [우산이나 양산 따위를 머리에 펴들어 비나 햇빛을 차단하다]로 확장되었고, 마지막 단계로 [성질, 바탕을 받아 지니다]라는 추상적인 대상으로의 확장을 보인다. ‘かぶる’는 ‘사람’이 아닌 ‘사물’의 서술의 주체와 결합하여 ‘덮음’에서 ‘가림’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나아가 ‘겹침, 중복’으로까지 ‘かぶる’의 의미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신다’와 ‘はく’의 공통 착용대상은 [신발]과 [양말]이다. 그러나 ‘はく’는 한국어에서는 ‘입다’의 의미자질인 [하의]를 착용의 대상으로 삼는다. ‘신다’의 착용부위인 [하반신]의 대상은 ‘스타킹’이 유일하고, ‘はく’는 모든 하의가 착용대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단, 착용부위는 [발], [하반신]으로 동일하다. ‘신다’는 ‘はく’와 대응하고 ‘はく’는 ‘신다, 입다’와 대응한다. 그러므로 ‘はく’의 의미영역이 ‘신다’보다 크고 ‘はく’는 ‘신다’의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신다’와 ‘はく’는 원형의 의미에서 착용부위와 착용대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의미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지적 사고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착용동사를 대표하는 한국어의 ‘입다, 쓰다, 신다’와 일본어의 ‘きる, かぶる, はく’만을 논의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착용동사가 발달한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이 외에도 ‘감다, 걸다, 걸치다, 매다, 끼다/まく, かける, はおる, しめる, はめる’ 등 많은 착용동사가 한일 대당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착용어 낱말밭으로 범위를 넓혀 이들의 의미대조연구도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룬 인지의미론적 의미 확장의 단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함이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미대조 연구가 실제 외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김기석(1996), 「조한 착용의미장대비」, 중국조선어문 1,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김영란(2008), 「한국어 ‘타다’와 중국어 ‘乘’의 대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응모(1995), 「착용에 관련된 자동사의 내용 연구」, 이중언어학 12집 1호, 이중언어학회.
- 김재봉(1989), 「착용동사의 낱말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준기(2003), 「착용어장의 의미고찰」, 국어교육 112,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김창구(2003), 「한일 한자 어휘의 대조 분석과 교육적 접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섭(2001), 「한국어와 일본어의 말소리 대조 분석」, 우리말연구 11, 우리말학회.
- 김희섭(2005), 「한·일 음성상징어의 비교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5,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박경자 외(2005), 「언어교수학」, 박영사.
- 신현숙(1998),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사.
- 신현숙(2005), 「{입다/벗다}의 어휘 정보」, 국어교육 116,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오미영 역, 石綿敏雄・高田誠(2007), 「대조언어학」, 제이앤씨.
- 우형식(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의 방향」, 낱말의 이해(박홍길 엮음), 한국문화사.
- 우형식・배도용(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 이해」, 부산

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이미숙(2005), 「한·일어 대조연구」, 제이앤씨.

이인순(1986), “동사 「쓰다」의 의미연구”, 전북대학교 국어교육 석사학위
논문.

이종열(1998), 「가다’의 다의성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어 의미
학 3, 한국어의미학회.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한국언어학회.

임지룡(2008),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임지룡(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정선균(2007), 「‘입다’와 ‘벗다’의 다의 체계와 반의 관계 연구」, 경북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천시권(1983), 「신체 착탈어휘의 구조체계」, 국어교육연구 vol15 No.1 국
어교육학회

玉城繁徳(1975), 「意味理論と朝鮮語の意味記述について」, 朝鮮學報77, 天
理大學, 朝鮮學會.

宮島達夫(1989), 「動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 國立國語研究所報告43,
秀英出版.

影山太郎(1992), 「日英比較語彙の構造」, (株)松柏社.

Backhouse, A.E.. (1981), Japanese Verb of Dress, *Journal of Linguistics*
17, 17~29. Great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전류>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영숙(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도서출판 미술문화.
김창준(1995), 「복식대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김하수 외(2007),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어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신현숙 외(2001), 「의미로 분류한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2004),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홍재성 외(2002),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大阪外國語大學朝鮮語研究室 編(1985), 「朝鮮語大辭典 上・下」, 角川書店.
松村明 監修(2006), 「大辭泉」, 小學館.
松村明·三省堂編修所(2006), 「大辭林」, 三省堂.
深谷圭助 監修(2009), 「例解學習類語辭典」, 小學館.

<누리집>

21세기 세종 말뭉치 <http://www.sejong.or.kr>

CETConc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트연구소 용례추출기)

한국어 <http://ikc.korea.ac.kr/cgi-bin/kwic/kwic.cgi>

일본어 <http://transkj.com>

A Semantic Contrastive Study on Korean and Japanese *wearing verbs*.

-Focus on {입다, 쓰다, 신다} and {きる, かぶる, はく}-

Kim, Su M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differences and the common things between Korean *wearing verbs* and Japanese ones through contrastive and cognitive semantic approaches.

For this study, three Korean *wearing verbs* and the Japanese counterparts were selected: ‘입다, 쓰다, 신다’, ‘きる, かぶる, はく’. The analysis was made in connection with wearing objects, because the wearing verb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objects. Proto-typical meanings and extended meanings were shown through the analysis.

As to the Korean verb ‘입다’ and the Japanese verb ‘きる’, Both can take [upper garment] and [upper and lower garment] as the key elements of objects, respectively. But the verb ‘입다’ can take [lower garment], but the verb ‘きる’ can’t.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body parts. The verb ‘입다’ is used where items of clothing are put on

[upper body], [lower body], and [whole body], while the verb ‘きる’ is used in [upper body], [whole body]. The extended meaning of the verb ‘입다’ and the verb ‘きる’ is ‘receiving(받음)’, but each verb shows differences. The verb ‘입다’ can be used under the [$\pm$ concrete], [$\pm$ positive] contexts, but the verb ‘きる’ appears in [-concrete], [$\pm$ positive]. Therefore, the Korean verb ‘입다’ corresponds to Japanese verbs ‘きる, 負う, 受ける, 服す’ and the Japanese verb ‘きる’ does to Korean verbs ‘입다, 쓰다’. Both verbs, which means ‘put on clothes’ in proto-typical meaning, are extended into the meaning of ‘receiving abstract objects’. But the verb ‘입다’ goes on step further. The verb ‘입다’ is used in the meaning ‘to be hurt in mind’.

The Korean verb ‘쓰다’ and the Japanese verb ‘かぶる’ take [hat], [mask] as wearing objects. The Korean verb ‘쓰다’ also can take [glasses] as objects. The body parts in both verbs are common, in terms of the elements such as [head] and [face]. The common object in both is [dust], [powder] and [dishonor]. The Korean verb ‘쓰다’ can take [umbrellas] for objects, but Japanese verb ‘かぶる’ can’t. There is one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verbs. The verb ‘かぶる’ can take the other things as well as people for subjects, but the verb ‘쓰다’ can take only people. The subjects that the verb ‘かぶる’ picks are [clothes], [photos], [colors], [sounds], [speech], [character]. Its meaning is extended from ‘covering(덮음)’ to ‘overlapping(겹침)’. Therefore, the Japanese verb ‘かぶる’ is equivalent to the Korean verb ‘쓰다, 겹치다, 흐려지다’, while the Korean verb ‘쓰다’ is equivalent to the Japanese verb ‘かぶる,かける, さす, うける’. The extended meaning in the verb

‘쓰다’ and the verb ‘かぶる’ is ‘covering’, but each verb shows differences. The verb ‘쓰다’ is extended to ‘hiding(가림)’, ‘screening(차단)’ and ‘possessing(소유)’. The verb ‘かぶる’ is extended from ‘covering(덮음)’ to ‘overlapping(겹침)’.

The verb ‘신다’ and the verb ‘はく’ can take [shoes], [socks] for objects. But the Japanese verb ‘はく’ can take [lower garment] unlike the Korean. Both share the body parts that are [feet], [lower body]. The Korean verb ‘신다’ corresponds to ‘はく’, while the Japanese verb ‘はく’ corresponds to ‘신다’ and ‘입다’. The Japanese verb ‘はく’ is bigger than the Korean verb ‘신다’ in meaning scope. Another common thing between two verbs is that meaning extension is not shown in both.

